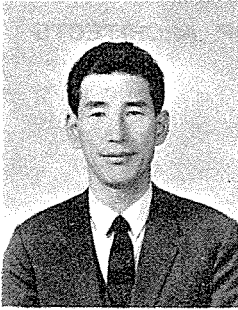


國展과 建築



쟁이는 元來 고달픈 것. 그러기에 고달픈 쟁이 만으로는 發展하기 힘이 들겠기에 國家에서 밀어 주고 育成하여 주는 意味에서 國展이라는 名目으로 擧國의 잔치를 해보자는데에 그 根本 意義가 있었던 것이다. 個人展도 있을 수 있고 同人展도 가질 수 있으나,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大廣場에서의 合同으로는 거의 不可能한 일. 그것도 各種의 部門別이 綜合된다는 것은 國展 아니면 엄두조차 못할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問題가 생겼다. 純粹美術만이 모여서 하겠다. 알아 본 즉 建築과 工藝, 그리고 寫眞은 좀 빠져달라는 이야기다.

理由로는 建築과 工藝는 實利의인 面이 美術의인 面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實利性 云云도 精神의인 面까지 따지자면 實利性 아닌게 없다. 可笑로운 일이다. 따지고 보면 藝術性을 忘却한 美術性은 存在할 수 없게 된다. 邇來에와서 모-든 造型 美術에 抽象乃至는 非具象이 前衛美術로서 登場하였다.

鐵부스러기와 용수철의 混合彫刻像 심지어는 세멘트에 나무 토막이 붙은 그림을 비롯하여 '캠퍼스'에 면도칼로 찌른 흔적, 그러나 이들의 母體는 藝術이라는 盤石위에서 創作 되었기에 美術로서 認定 받게 되는게 아닌가? 이러한 論理로서 建築도 工藝도 寫眞도 當當한 造型美術로서 存在한다. 要是 藝術性이라는 根本의인 焦點만 喪失치 않는다면 嚴然한 美術이다. 이제 우리는 亞細亞의 韓國이 아니라 世界의 韓國으로 登場되어 가고 있다. 去年 1959年 11月 오지리의 뷔엔나에서 UNESCO 主催로 世界造型藝術聯盟의 모임에 우리나라 代表中 建築分野에 姜明求, 鄭寅國 兩氏가 參席한 바 있었다. (繪畫에는 金仁承氏 彫刻에 金貞淑氏) 그 當時의 案件으로서 彫刻이나 繪畫가 本

來의 建築을 移脫하여 (타락)하고 있으니 本然의 姿勢인 建築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具體的으로는 建築時에는 工事費의 20%를 繪畫, 彫刻 費用으로 加算編入하여 豫算 設定토록 하는 決議를 通過시키어 UN 參加國을 爲始하여 其他 各國政府에 通報한 바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國際的인 情勢와 潮流를 無視하여 送流하는 處事를 한다는 것은 美術史에 汚點이 될까 두렵다.

더욱이 우리나라 實情으로 보아 專門家 以外의 人士는 美術에 觀心이 없다. 그러기에 한자리에서 美術의 큰 자리를 가져보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建築展을 보러와서 그림과 彫刻을 自然히 보게 되고 그림이나 彫刻을 보러왔던 김에 工藝나 建築을 보게 되니 觀覽人에게 見識을 높여주게 되는 一石二鳥의 셈이 된다. 오늘날의 美術界는 一般과의 呼應이 不足한 過度的인 現況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相互 아끼고 協助해야 할 時機가 아니겠는가. 그림쟁이나 조각쟁이라하여 唯我獨存格이나 我田引水格인 思考와 判斷은 危險하다. 또 이러한 點을 即, 分裂과 獨走를 避하고 補充하여 키우자는데에 本來의 國展의 意義와 그 趣旨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建築人 自身은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反省해야 할 時點이 왔다고 본다. 果然 그네들 制度委員만의 잘못으로만 돌려야 하겠는가. 特히 既成作家라고 自稱하는 쟁이들이 一般의 國展問題에 있어 어떻게 풀이틀하고 어떻게 生覺하는가. 果然 他部問과 같은 誠意가 우리에게 있었던가. 實은 이점이 制度委員이나 文公當局에서 의아하게 生覺하는 問題點이었고 除外한다는 結論까지 이르렀던 主動機가 되었던 것이다. 하기가 우리만의 애로가 許多히 있다. 그것도 그네들에게는 說明해 주었다. 그러나 國展이라는 全體의 모임에서 볼 때에는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네들의 解釋이다.

나는 當局에 強堅한 呼訴를 提起하였고 그對策을 마련하였다. 國立大建築展이 出現하는 것이다. 現在까지의 國展費用은 全額 900萬원이었다고 하는데 建築展은 그보다는 약간 적은 額數라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이야기는 推進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차제에 建築쟁이로서의 긍지와 自負心으로 明春부터 施行될 大建築展에 臨할 態勢를 갖추어야 하겠다.

建築家協會 會長 嚴德紋